

# ‘서브-3’ 100회 완주자 나온다

(3시간내 풀코스 완주)

조준보·구병주씨, 내년 1월 여수엑스포마라톤 도전

성공 땐 국내 4, 5호…임채호씨는 풀코스 300회 도전

내년 새해 벽두부터 국내 마라톤계의 경사가 생긴다.

2010년 1월 10일 개최되는 제5회 여수엑스포국제마라톤대회에서 2명의 마스터스 마라토너가 서브-3(3시간 내에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 100회를 달성을 예정이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경남 거제시의 아마추어 마라토너 조준보(49·대우해양조선)씨와 경기도 수원시의 구병주(43·케피코)씨.

이들은 그동안 수많은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면서 국내 아마추어 마라톤계에서는 이미 스타 반열에 올라있는 인물들이다.

이봉주 선수가 은퇴할 때까지 완주한 풀코스가 41회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진기록이다.

이들이 여수마라톤대회에서 서브-3에 성공할 경우, 각각 국내 ‘서브-3 100회’ 4호, 5호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서브-3 100회 완주 기록은 2008년 8월 사천노을마라톤대회에서 심재덕 씨(광주일보

3·1절마라톤 풀코스 3연패)가 처음으로 달성했다. 이어 올해 3월 동아마라톤대회에서 김재중 씨(2009년 여수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100회 달성)와 남궁만영 씨가 동시에 서브-3 100회를 달성했다.

이들 3명은 이번 여수마라톤대회에 모두 풀코스에 출전해, 서브-3 국내 4, 5호의 탄생을 축하해 준 후, 대회 당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국내 서브-3 100회 이상 기록 보유자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브-3은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5만 명 중, 불과 수백 명 정도만이 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조보준 씨는 “2012년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아름다운 미항 여수시에서 서브-3

100회에 도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긴다”며 “여수마라톤대회에 지금까지 4차례 모두 출전했는데, 난코스이지만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여수를 100번 째 서브-3 도전 대상지로 선택했다”고 말

했다.

구병주 씨도 “전국 3대 난코스로 명성을 얻고 있는 여수마라톤대회에서 서브-3 100회를 달성을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해 여수를 선택하게 됐다”며 “최근 열린 진주마라톤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컨디션이 좋아, 서브-3가 무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임채호(60·부산시 연제구)씨가 이번 여수대회에서 풀코스 300회에 도전한다.

국내 풀코스 300회 이상 완주기록 보유자는 현재 3명으로 임 씨는 앞으로 꾸준히 풀코스 완주에 도전해 기네스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제5회 여수엑스포국제마라톤대회에는 여수시 소호동 디오션리조트~화양면 삼지공원 왕복 42.195km를 달리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호남에서는 역대 최초로 풀코스 참가자는 1천명을 넘어섰으며 아마추어 마라톤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고수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대회 전체 참가자는 풀코스를 비롯해 하프, 10km, 5km 4개 종목에 걸쳐, 전국에서 6천명 이상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 히어로즈 가입금 문제 KBO, 내일 결론 낸다

연말 프로야구계를 어지럽힌 히어로즈 가입금 문제가 30일 결론을 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오전 9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8개 구단 사장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열어 히어로즈가 미납한 가입금 36억원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결정에 히어로즈의 구단 지위와 향후 트레이드 성사 여부가 달려 있어 전체 프로야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히어로즈가 내야 할 가입금에는 두산과 LG 등 서울 연고구단이 받아야 할 입성금과 SK가 주장한 보상금이 동시에 맞물려 있어 이사회가 난마처럼 얹킨 실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태는 히어로즈가 이달 말까지 KBO에 납부해야 할 36원 중 30억원을 일의로 두산과 LG에 각각 15억원씩 나눠준 뒤

지난 18일 LG에 간판 외야수 이택근을 보내고 선수 2명에 현금 25억원을 얹어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촉발됐다.

/연합뉴스

2009 광주시장배 여성생활체육 댄스경연대회 성료

2009 광주시장배 여성생활체육 댄스경연대회가 27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주부 등 여성동호인들이 능동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해 함께 개인의 건강을 도모할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 대회를 통해 생활체조나 전통무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체육을 체험함으로써 여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 할 것

으로 기대된다.

50여개 클럽, 5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해 5개 댄스종목에서 경합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생활체조), 라틴 엘레스(댄스스포츠), 빛고을어등스포츠메카(한국전통무용), 아세라 빌리댄스(밸리댄스), 디지스타일(재즈댄스)가 각각 부문별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위유나(지체체조교실)의 2명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28일 충북 청주시 체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0년 탁구 국가대표 상비군 2차 선발전에서 삼성생명 윤재영이 KT&G 김경민을 상대로 스매싱을 하고 있다.

## 전남 체육인재 육성기금 10억 돌파

매년 초·중·고·대학생 등 60명에 장학금 지급

박준영 지사, 1년간 적립 강의료 350만원 기탁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전남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 조성 1년여만에 드디어 10억원이 마련됐다.

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서정복·이하 도체육회)는 28일 “도내 스포츠 관계자들과 시·군·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장학기금 마련 1년여만에 목표액인 10억원을 돌파했다”면서 “이중 8억5천여만원은 이미 조성되었고, 1억7천여만원은 14개 시·군에서 기탁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도체육회는 또 “최근 박준영(사진) 전남도지사가 한행동안 각종 강의를 통해 적립해온 강의료 350만원을 기탁해 장학기금 조성에 일조함과 동시에 전남체육인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고 전하면서 “박 지사는 ‘강의도 성공적 도정 수행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에 여기서 발생한 수입을 도민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남 장학기금 조성액은 현재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을 운영 중인 6개 시·도체육회(대구·제주·경북·인천·경남·대전) 중 최다

액수이다.

도체육회는 기금 운영 규정에 따라 기금의 매년 발생이자(4.4% 기준) 3천900만원을 체육 인재 60명(초등 10명·중등 10명·고등 30명·대학 1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초등생 30만원·중학생 50만원·고교생 70만원·대학생 100만원이다.

이번 장학기금 조성 사업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전남체육의 위상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표액 10억원은 지난해 89회 전국체전 후원금 3억5천만원에다 전남도·도교육청·도내 시·군과 체육인 등의 후원금으로 조성됐다.

장학기금 대상자는 전남 출신 체육인재로서 장래가 유망하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선수들이다. 또한 특정 경기종목에서 기량이 탁월하거나, 장학기금 출연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체육인재도 해당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7연패

### 2000년대 최고의 기록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이 투르드프랑스(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대회)에서 7년 연속 우승한 기록이 2000년대 스포츠계 최고의 이정표로 꼽혔다.

미국 스포츠전문잡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28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2000년대에 큰 이정표를 세운 20개 기록을 뽑으면서 암스트롱의 투르드프랑스 연속 우승을 1위에 올렸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스포츠 팬들은 암스트롱을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우승이 세계에 미친 충격에 대해서는 대개 과소평가 한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암스트롱은 고합을 닦고 1999~2005년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투르드프랑스를 연속 우승했다.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한 암스트롱은 2005년 은퇴했다가 을해 투르드프랑스에 복귀했다.

다면 암스트롱은 7연패 신화를 달성하면서 액물 복용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 스포츠 종목별

29일(화)

▲09/10 V리그〈우리개피탈·신협상무〉(16 : 40·KBS n스포츠)〈LIG손해보험·현대캐피탈〉(18 : 40·KBS n스포츠)

▲09/10 프로농구〈KT&G·전자랜드〉(18 : 50·SBS스포츠)〈모비스·오리온스〉(18 : 50·MBC ESPN)

28일 충북 청주시 체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0년 탁구 국가대표 상비군 2차 선발전에서 삼성생명 윤재영이 KT&G 김경민을 상대로 스매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필장 위치: 법원정문앞

29일(화)

&lt;p